

## 중부일보 창간 15주년 축하 메시지

중부일보 창간 열다섯 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과 함께 창간된 중부일보는 알찬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그늘 없는 경기도'와 같이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획보도는 지방언론의 좋은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경기의 미래는 더없이 밝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허브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고, 경기 북부는 첨단산업과 남북 교류·협력의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수원·은평은 반도체 클러스터로, 경기 남부와 동부는 각각 해상물류와 휴양·관광 산업의 중심으로 집중 육성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더불어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무분별한 과밀에서 벗어나 계획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경쟁력과 삶의 질을 고루 갖춘 지역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중부일보에 거는 기대가 큼니다. 인천·경기 지역이 보다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창간 15주년을 축하드리며, 중부일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